



게임کم 하프

추방당한 하프

마을 우물가, 마법에 필요한 깨끗한 아침 이슬을 구하기 위해 친구들과 나선 나비족 하프는 낮선 나방족 노인을 만난다. 노인은 목마름을 호소하지만 다른 부족을 멸시하는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만다. 하지만 다른 나비족 요정들과 달리, 마음씨 착한 하프는 두레박 마법을 부려 노인에게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한다. 무척이나 고마와하는 노인은 하프에게 이러한 말을 남긴다.

"경손"... 마을로 돌아온 하프는 도서관에서 나비족에 대한 저주에 대해 알게된다. 그 때 나비 족장이 보낸 전령이 찾아와 족장이 부른다는 말을 듣는다. 하프는 마법학교 선생님이기도 한 족장이 왜 자신을 부르는지 궁금해 한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다만 부모님도 자신과 같은 마법학교 출신의 마법 요정일 것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는 하프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분은 할머니이다. 마법학교에서 친구들이 빈정대며 빨리 족장님께 가보라는 말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까닭모를 불안감. 족장은 하프에게 나비족이 지켜야 할 율법 중 하나인 다른 부족을 도와주는 일에 대해 심하게 꾸지람을 한다. 참다못해 족장에게 반박을 하던 하프는 그만 추방당하고 마는데...

키보드 사용 방법

키보드 사용 방법은 <표>와 같다.

키보드	기 능
<↑>	공격
<↓>	도망
<→>	방어
<F10>	메뉴 부르기

【표】 키보드 사용 방법

말벌족의 무자비한 침략

추방당한 하프가 갈 수 있는 길은 마을 오른쪽에 있는 독선의 분지이다. 이곳에 도착한 하프가 다시 한번 마을을 돌아보았을 때 실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반목하며 살아왔던 말벌족 요정들이 공격해와 여자 요정이 대부분인 힘없는 나비 요정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노예로 끌고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프를 추방할 것을 명령하는 나비족 족장

사랑하는 할머니와 친구들의 안부가 궁금하였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자신은 이미 나비족 마을에서 쫓겨났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을 걱정하며 예언서에 나타난 모든 것에 대한 궁금증을 풀려는 생각이 고작이었다.

노예장의 희생으로 마을에서 빠져나온 하프

독선의 분지를 지나 북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말벌족이 살고 있는 마을이 나온다. 바로 이곳에 잡혀간 친구들과 할머니 그리고 족장님이 계신다. 때마침 노예로 끌려가는 나비족 무리가 있어 하프는 거기에 섞여 말벌족 마을로 들어간다. 자신을 끌려온 나비족 노예 중의 한 명으로 생각하는지 아무런 의심도 없어 나비족 노예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한 군데, 군대 사령부실로 보이는 집에는 한 발작도 들어갈 수 없었고, 말벌족 궁전으로는 더더욱 들어갈 수 없었다. 말벌족 궁전에서는 연회가 베풀어진다고 하며 그곳 지하 감옥으로 가면 붙잡혀간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하프는 어떻게 하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곰곰히 생각한다. 어느 후미진 건물에서 다른 나비족 노예들이 사는 집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미 붙잡혀 온 노예들 중에서 뽑은 나비족 노예장을 만날 수 있다. 노예장은 하프가 자신들을 구출하러 온 밀사인줄 알고 환대를 한다. 하지만 하프 역시 끌려온 노예에 지나지 않으며 나비족 마을이 말벌족 군사들에 의해 짓밟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실망에 빠진다. 그러나 하프의 설득으로 비록 혼자이지만 자신만이 이 불행한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노예장에게서 열쇠 하나를 건네받는다. 그 열쇠는 말벌족 군사령부 문 열쇠로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말벌족 군사령부에 잠입한 하프는 그곳에서 말벌족 참모장과 부하가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고, 이번 나비족 마을 침략에 쓰였던 변신 마법가루를 얻게 된다. 변신 마법만 있다면 말벌족 요정들만 드나들 수 있는 말벌족 궁전에 말벌족 요정으로 변신하여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한 하프는 궁전 입구에 도착한다. 말벌족 마을에 들어선 하프는 곧바로 궁전 연회장으로 들어가려 한다. 하지만 음식을 나르는 시녀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안 하프는 여기서 또 다른 길을 찾는다. 그 때, 눈에 들어온 건물은 한창 식사 준비에 열을 올리는 주방 건물이었다. 엉겁결에 궁전에 들어갈 식사를 들고 무사히 궁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다른 말벌족 요정들과 달리 날개가 곳곳이 서있는 자신의 모습을 의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마법 가루를 이용해 말벌족 요정으로 변한 하프

하지만 다행히도 눈치를 챌 것 같지는 않아 무사히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 성공적인 나비족 침공에 대한 축하연회가 벌어지는 연회장에는 말벌 족장과 참모장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먹고 마시고 있었다. 눈 앞에 말벌족 족장이 보이고 그 옆에는 참모장이 특유의 음흉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정의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말벌 족장은 이번 침략에 사용했던 방법에 대해 약간의 불만을 참모장에게 말하고 있었다. 오로지 정의만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참모장과의 이야기를 하프는 엿듣게 된다. 엿듣기에 정신이 팔린 하프에게 족장이 큰 소리로 음식을 부탁하자 하프는 얼떨결에 두 손에 들고 있던 음식을 쏟고 말았다. 참모장을 크게 화를 내지만, 부드러운 미소로 이 정도 실수는 눈감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말벌 족장의 태도에 하프는 의아해 했다. 연회장을 나선 하프는 연회장 서쪽에 지하 감옥과 감옥 주방이 있음을 알고, 그 감옥에는 분명히 나비 족장이 갇혀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식당 주방으로 온 하프는 주방장에게 감옥 주방에서 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다. 주방장은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감옥 주방에 스스로 가고 싶어하는 하프를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허락한다. 감옥 주방에서 음식을 들고 지하 감옥으로 들어간 하프. 그곳에서 마침내 나비 족장을 만난 하프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이 예언에 나타난 하프의 후계자이며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요정이라는 사실을...족장은 하프에게 빨리 말벌 마을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라면서 자신이 아끼던 목걸이를 선물로 준다. 하프는 이 목걸이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할 것이라는 족장의 말을 되새기며

감옥을 나선다. 감옥에서 나온 하프는 아까까지 심각하게 둘의 대화를 엿듣던 보조를 뒤로 하고, 이 사실을 노예장에게 알리기 위해 궁전을 나선다. 노예장에게 그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 주자 그는 이곳에서 빠져나가 더 큰 일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각오를 밝힌다. 노예장의 도움으로 하프는 마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버려진 마을, 탄광촌

탄광촌은 나비족과 나방족, 말벌족이 지배하는 요정 세계에서 단지 생활에 필요한 광물을 채취하는 존재로 요정 세계에서 버림받은 마을로 취급되고 있었다. 이곳에 하프가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의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으며 마을에서 일어난 나쁜 소식에 하프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간 마을 남자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그의 아내를 어떻게 위로를 할지 모르던 하프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음을 알고 마을을 떠난다.

누명쓴 탄광촌 사람들 그리고 감옥

요정 세계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감옥은 말벌족 출신의 치안관이 관리하고 있었다. 이곳으로 오는 길은 매우 복잡하다. 물 속에 나있는 미로를 헤치고 건너와야 하고, 보이지 않는 길도 찾아내야 한다. 감옥에 도착한 하프는 정의만이 세상의 이치로 알고 있는 원칙주의자 치안관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치안관의 이야기가 어딘가 좀 이상하다. 하프는 결국 이곳에 잡혀 온 탄광촌 남자 요정을 만나 자초지종을 듣게 된다. 그는 말벌족 마을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말벌족에게 속아 돈없이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잡혀왔으며 탄광촌 마을에는 아내가 있고, 미천한 신분 때문에 아무런 방법없이 평생 감옥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그러면서 그는 하프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한다. 하지만 정의 하나만을 신조로 원 칙에 벗어나는 일은 용납하지 못하는 치안관에게 선처를 부탁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신감을 되찾은 촌장

허탈한 심정에 빠진 하프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탄광촌 마을로 간다. 마을에서 하프는 죄수의 아내로부터 탄광촌 촌장님이라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는다. 하프가 다시 만난 탄광촌 촌장은 하지만 자신없어 한다. 하프는 다시 우울한 심정에 젖어든다. 그러나 하프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촌장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한다면 못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살아난 촌장은 하프에게 감옥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길을 떠날 준비를 서두른다. 하프는 다시 감옥으로 발길을 옮기고...

잘못된 정의

감옥에서 하프는 탄광촌 촌장을 만났고, 다시 말벌족 치안관과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말한다. 탄광촌 촌장은 치안관에게 자초지종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억울한 누명으로 잡혀왔지만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탄광촌 마을에 남겨둔 처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잠시 후 치안관은 이에 감동을 받았는지 자신이 생각해 온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하는듯 했다. 결국 치안관은 억울하게 잡혀있는 죄수들을 풀어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정의가 사실은 자신만이 우월할 수 있다는 생각임을 깨닫는다. 그는 이 모든 일이 하프 덕분임을 알자 자신이 소중히 간직해 온 정의의 상징인 단검을 하프에게 준다. 모든 일은 평화롭게 해결되었다. 탄광촌 촌장은 자신감을, 치안관은 참된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프는 모든 사람이 정직하다면 어떠한 일도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목걸이의 무늬와 예언

아직 못가본 마을, 나방족 마을은 겸손을 신조로 삼는 요정들이 살고 있었다. 원래부터 자신감이 넘치며 지적 능력이 뛰어난 나비족 요정과 정의가 신조이며 신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벌족과는 달리 나방족은, 양보와 겸손을 생활 자세로 삼고 있었다. 나방족은 다른 부족들에게 양보와 희생만을 해서인지 상대적으로 핍박받고 살아온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생활은 새로운 족장이 나방족을 이끈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먼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자유는 누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국방에 힘을 써야 방어를 위한 군사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전에 없었던

훈령장도 있었고, 부족의 안녕을 위해 항상 천막에서 살고있는 나방 족장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본래 성품인 겸손은 그대로여서 다른 부족을 만나면 따뜻하게 대해주는 전통을 간직하고 있었다. 나방 족장의 배려로 하프는 별장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 오랜만에 휴식을 맛본 하프는 밀려오는 졸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꿈 속에서 하프는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요정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어두운 문 저편에서 들려오는 기분나쁜 소리들... 하프의 단잠은 오래가지 못했다.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창가에 다가간 하프는 거기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의 주인공을 볼 수 있었다. 아주 작고 귀여운 나방족 꼬마 요정이 빙긋 웃으면서 자신을 선망의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다. 나방족 꼬마는 하프에게 나비족 요정이 이 마을에 한 명 살고있다고 알려준다. 또 마을에 나비족 마을 건물과 비슷한 집이 한 채 있는데, 거기서 만나자고 말하고는 급히 길 쪽으로 뛰어가 버렸다. 하프는 별장을 나와 꼬마가 가르쳐 준대로 나비족 마을과 비슷한 집을 찾아 안으로 들어갔다. 그 곳에는 꼬마가 알려준 대로 나비족 여자 요정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법 학교를 졸업하고 수행 중인 마법 견습 요정이었다. 같은 동족을 만난 기쁨과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나비족 마을이 말벌족들에게 점령되었다는 소식과 족장님을 비롯한 많은 요정들이 말벌족 마을로 잡혀갔다는 슬픈 소식-을 들으면서 슬픔에 잠겼다. 견습 요정은 하프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에 관심을 나타내었다. 자신이 수행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말벌족 대마법사를 기리는 뜻에서 세운 신전 도서관에서 목걸이에 새겨진 무늬를 본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하프는 순간, 나방 족장이 말했던 예언과 도서관 이야기 그리고 봉인된 '하프'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고 무언가 중요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프와 견습 요정은 신전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길을 떠나기로 하였다. 더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비극으로 치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프의 전설과 아독시니의 정체

나방족 마을을 떠나 신전 도서관까지 오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다. 물론 요 정 세계의 동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를 돌아와야 했지만. 신전 도서관은 말 그대로 요정 세계의 역사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 도서관인 동시에 신전이다. 지금은 관리하는 요정이 두 명밖에 없지만, 처음 건립 당시에는 많은 요정들이 이곳에 와서 경배하고 마법 연구에 몰두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나비족에 내려진 저주와 말벌족의 침략 전쟁 그리고 나방족의 은둔으로 황폐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곳에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념물을 신전 깊숙히 말벌족 대마법사가 봉인했다고 전해진다. 그 기념물에는 세계 최고의 마법 생물이 깃든 하프가 숨겨졌다는 전설만이 전해져 올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선택받은 요정만이 찾을 수 있으며 잘못 그것을 사용하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올 것이라는 사실도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많은 책장들의 물결로 이루어진 신전 도서관 동쪽과 서쪽 양끝에는 이곳을 관리하는 요정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하프에게 뜻을 단어를 되풀이할 뿐이었다. 두 요정의 말은 이곳 어딘가에 봉인이 되어있는 입구가 있고, 그곳을 지나 어딘가에는 말벌족 대마법사가 숨겨놓은 보물이 있다는 것, 또 곳곳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형태가 알려지지 않은 '아독시니'라는 괴물은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사악한 마법 생물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요정들을 괴롭힌다고 한다. 하지만 아독시니를 이기기 위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먼저 긴 창과 칼같은 물건이 필요하다. 마침 하프는 치안관에게서 얻은 칼이 생각났다. 하지만 긴 창이 될 수 있는 막대기는 갖고 있지 않았다. 긴창이라... 하프는 곤란에 빠졌다. 이 먼곳까지 와서 다시 돌아가 창을 구하기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프는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창을 구하기 위해 다시 신전 도서관을 나섰다.

칼과 창

신전 도서관을 나와 남쪽으로 내려오다 하프는 샛길 하나를 발견한다. 그리고 굽긴 다리와 물 속으로 나있는 길도 발견한다. 마치 전에 감옥으로 가던 길과 같은 방법으로 지나온 것 같다. 하프는 이윽고 나타난 초라한 창고에 도착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곳은 감옥에서 북쪽으로 불과 몇킬로미터도 안되는 곳에 있었던 것이다. 단지 오는 길이 매우 복잡하고 보이지 않는 길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뿐이다. 창고에 열기설기 역인 덩쿨을 치안관에게서 받은 단검으로 잘라내고 안으로 들어가자. 안은 먼지가 잔뜩 쌓여 있어서 오랫동안 요정들의 출입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창고에서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그 때 하프의 눈에 막대기 하나가

보였다. 그리고 아까의 목소리가 그 막대기에 갇혀 있는 마법 생물이게서 들려오던 목소리였음을 알았다. 막대기에 갇혀 있는 마법 생물은 자신은 수 백년간 이곳 창고에 갇혀 있었으며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전투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전투 마법 생물이라고 소개한다. 그러면서 창고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기다란 창을 찾고 있던 하프에게 막대기는 안성맞춤이었다. 하프는 재빨리 막대기를 들어 가지고 있던 단검과 짝을 맞추니 창같은 모습으로 변하였다. 하프는 다시 신전 도서관으로 향하였다.

두 요정의 도움

신전 도서관으로 돌아온 하프는 일단 동쪽 요정에게 들려서 구해온 창을 보여주었다. 그것을 눈여겨 본 동쪽 요정은 창이 허술하게 끼워 맞추어져 있음을 알고 다시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제대로 된 창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할일 다 했다는 듯이 그 뒤론 아무 말도 없었다. 서쪽 요정은 지난 번의 말을 되풀이 하면서 다시 목걸이에 얹힌 뜻을 가르쳐 주었다. 또 신전 도서관 깊숙히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주었다. 이제 하프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봉인은 목걸이 열쇠로 허물고, 저편 깊숙히 숨겨진 비밀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끝도 없는 책장의 행렬 그리고 다가오는 위험들... 주변은 조용했지만 마귀들의 접근은 하프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었다. 하지만 하프의 앞길을 막지는 못했다. 책장 어딘가에는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는 장치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고, 구부러진 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 아득시니가 가로막고 있는 입구에 다다르게 되었는데...아득시니의 출현과 벗겨진 하프의 비밀 아득시니의 힘은 역시 막강했다. 그러나 하프에겐 아득시니를 물리칠 수 있는 창이 있었고, 무엇보다 여행 중에 배운 용기 그리고 세상을 위한 희생 정신이 아득시니에게 맞설 수 있게 했다. 마침내 아득시니는 하프가 휘두른 창 끝에 찢려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괴물 아득시니

아득시니가 사라진 곳에 한 줄기 빛이 쏘이고 있었다. 그것은 환하게 비취는 광명이었다. 빛이 내리쬐는 쪽을 따라 들어가니 제단 앞에는 누군가가 읽어보라고 준비한 마법 예언서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하프는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많은 수수께끼가 책에 모두 들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 그 시간에 세상에는 폭풍과도 같은 전쟁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프의 비밀을 찾아 말벌족의 다른 부족들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프의 비밀을 알고있는 듯한 하프를 숨겨준 대가로 말벌족은 나방족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맞서 나방족은 그동안 설움받던 압박에서 벗어나 종족의 안녕을 위해 전투 태세에 돌입하였다.





이따금 전투를 벌이기도 한다.

하프가 말벌족 대마법사가 남긴 예언서를 읽고나자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책장 뒤쪽으로 신비스러운 악기 '하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하프 악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 깃든 마법 생물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모습을 드러낸 악기 하프

하프는 예언서가 알려준 대로 하프에 깃든 마법 생물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프의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법 생물은 자신은 '검손'이라 는 세계 최강의 마법 생물이며 자신의 능력을 하프 자신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그것은 입으로 전달되는 음성이 아니라, 가슴으로 전해져 오는 정신적 에너지였다. 아직 알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하프는 자신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말벌족 대마법사에게 선택된 요정임을 알았다. 하프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이 해야하는 사명임을 느꼈다.

평화의 사절이 된 하프

신전을 나섰을 때 마법 검승 요정이 다가와 그동안에 있었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마을로 가는 길은 이미 폐쇄되어 돌은 나방족이 피신해 있는 캠프 지역으로 갔다. 그들은 거기서 피신해 있는 나방족 요정들과 군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나방 족장을 만나 이번 전쟁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아름다운 세상은 일순간에 폐허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지만 족장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를 살 뿐이었다. 그 때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하프가 서있던 자리에 홀연 용이 나타났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용의 모습에 많은 요정들은 겁을 먹었다. 하지만 그것은 하프 속에 깃든 검손 마법이 부린 변신 마법이었다.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다. 이윽고 나방 족장은 이번 전쟁에 맞대응하기 보다는 하프를 사절로 보내 말벌족들을 설득하는데 동의하였다. 이 전쟁과 오랫동안 일어났던 요정 세계의 불행을 하프가 모두 짊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프 스스로가 원하였 던 것이었다.

하프의 심장을 꿰뚫은 화살, 마침내 전쟁은 시작되고...

나방족 병사의 배웅을 뒤로한 채 하프는 홀로 말벌족 진지에 뛰어들어 말벌 족장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한 쪽에서는 이 모든 일을 뒤에서 계획한 말벌 참모장이 적개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하프는 그동안에 있었던 요정 세계의 역사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겸손의 능력을 빌어 '화합 마법'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듯 했다.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은...그것은 하프의 심장을 꿰뚫어 하프는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하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몰려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말벌 참모장은 손에 석궁을 들고 있었으며 그 화살을 쏜 사람은 참모장이었다. 말벌 족장은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 분개하지만 모든 일이 참모장의 손에 좌우되는 말벌족 병사들에 의해 감금되고 말았다. 새로운 말벌 족장이 된 참모장은 전군에게 총공격 명령을 내리는데...한편 가쁜 숨을 몰아쉬던 하프의 몸 속에서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원래 마법 생물은 마법을 부리고자 하는 요정에 의해 그 마법이 발휘되는게 정상이다. 하지만 예외란 있는 법, 사랑으로 가득찬 하프의 가슴 속에 살아있던 '겸손'에게 새로운 힘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겸손은 마법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법을 일으키고 있었다. 용으로 변신한 겸손은 하프를 들고 어디론가 날아오르고 있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나방족은 하프의 작전이 실패하였음을 알고 모든 나방족에게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이로써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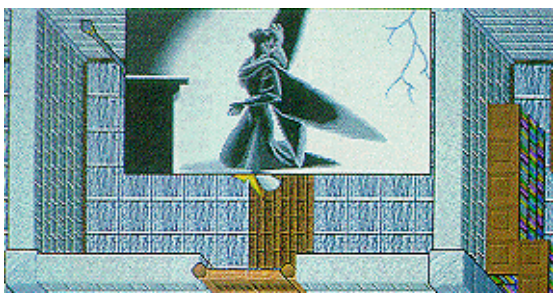
충상을 입은 하프를 데리고 가는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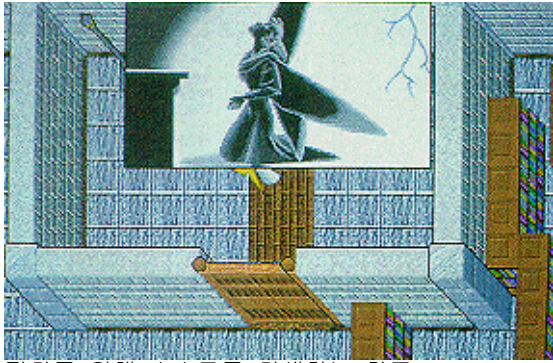
하프, 부활하다!!

한 줄기 생명의 빛으로 지탱하고 있는 하프를 데리고 내려앉은 곳은 신전 도서관 앞 뜰. 여기서 하프는 자신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을 슬퍼하고 있었다. 이윽고 하프의 몸은 식어갔고, 겸손은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음을 한없이 슬퍼하였다. 하프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 도착한 곳은 파란 초원으로 덮인 요정의 사후 세계였다. 흐르는 음악 소리를 따라 걸던 하프는 언뜻 어디서 본듯한 나비족 요정을 만난다. 그는 말벌족 마을에서 만났던 노예장으로 말벌족 병사들의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던 것이다. 하프는 반가운 마음이 앞서기 보다 자신의 할일을 못하고 그를 만난 것에 대해 부끄러웠다. 하지만 노예장은 하프가 여기서 끝내선 안되며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알려준다. 그것은 진정한 희생인 동시에 세상을 구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노예장을 만난 하프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를 희생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사후 세계에서 만난 말벌족 대마법사. 그는 다름아닌 오래 전에 만났던 말벌족 노인으로 그가 세상에 잠깐 나와 그녀를 지켜보았고, 이제 다시 만나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프는 이 모든 일이 대마법사가 저지른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을 원 래의 자리로 돌리기 위해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주장한다. 하프의 희생과 사랑앞에 굴복한 대마법사는 다시금 그녀를 세상으로 돌려보내고...

사랑으로 세상을 구한 요정 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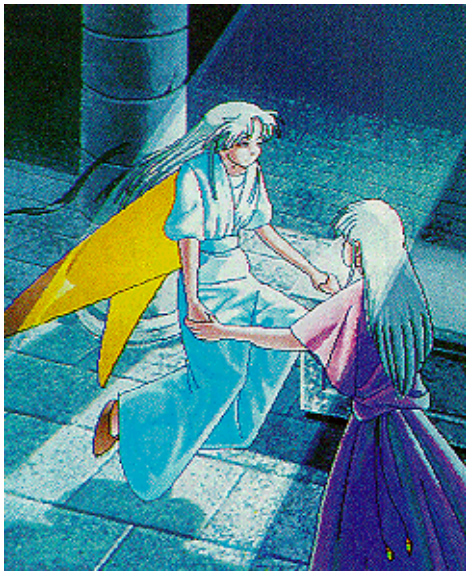
다시 살아난 하프는 자신을 간호하던 '겸손'의 만류도 뿌리치고 도서관 신전 제단으로 걸어갔다. 이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신전에 도착한 하프는 스스로 자신의 피로 제단에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고, 이는 요정들에게 내려졌던 형벌을 자신이 짊어지고 죽는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평화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하프

하프는 나비족의 자신감의 상징인 양날개를 꺾어 피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쪽 날개마저 꺾어 자신의 활일을 모두 마치고 눈을 감았다. 이제 하프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로써 하프는 스스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세상을 구한 것이다. 그녀가 남긴 사랑을 모든 종족들의 가슴 속에 남긴 채...



하프의 희생으로 종족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장르 : 어드벤처

제작 : 노리(NORI MEArts)

가격 : 2만8천원

자료협조 : 지관(유)(☎ 871-0812)

